

1. Verizon과 Petrobras의 이사회 추천에 관한 주주권 강화 (2013. 05)

- 지난 5월 2일, 미 최대통신사인 버라이즌(Verizon)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이사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안건이 과반수 지지를 받아 통과됨
 - 동 주주제안은 한 기업퇴직자협회(Association of BellTel Retirees)가 제기한 것으로, 3% 이상의 보통주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임
 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금융개혁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의 이사회 추천권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, 위헌소송에서 패소하여 폐기된 이후 기업의 자발적 도입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이어지고 있음
 - 버라이즌 주주들은 동 주주제안에 대하여 53.2%의 지지를 보내며 안건을 통과시켰으나, 결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비구속적투표이므로 버라이즌의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고 정관을 변경할지는 확실하지 않음
 - 3월에 주주총회를 가진 Western Union과 HP는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이 통과되었으나 0.5%를 보유한 주주에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주주제안이 상정된뱅크오브아메리카 주주총회에서는 9%의 지지를 받는데 그침

- 한편, 브라질에서는 국영 정유업체인 Petrobras의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로 브라질 자본시장투자자협회(Brazilian Association of Capital Market Investors)의 경영자인 Mauro Rodrigues가 선출됨
 - 브라질은 정부소유의 기업에 대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, 지난 해 브라질 정부가 소수주주 대표이사를 직접 지정하고 그를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 국영 연기금을 소수주주로 지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비난과 개선요구가 쇄도함
 - Petrobras는 이에 동조하여 소수주주 대표이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주주들의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음
 - 자본시장감독기구인 CVM이 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이후, Petrobras는 소수주주 대표이사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소수주주 대표이사를 1인 더 선임하는데 동의하여 주주들과 화해에 나섬
 - 또 다른 대형 국영기업인 Eletrobras에서도 4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2인의 소수주주 대표이사가 선임됨